



“한국의 EU-APR 및 원전 주기에 상당한 관심 보여”

현중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경영기획실 차장

ROSATOM(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가 주최하는 국제원자력전시회인 ‘International Forum ATOM EXPO’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Gostiny Dvor(Гостинный Двор)에서 개최되었다. 아톰엑스포(ATOMEXPO)는 2009년 처음으로 시작해서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 포럼에는 33개국 정부 대표단과 60여 개국 65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 모두 6천5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다.

전문가 원탁회의 등 행사장 곳곳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 방안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러시아 원전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로스아톰 이사회 의장이자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을 맡고 있는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포럼 전체 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크게 줄임으로써 ‘그린 에너지(Green Energy)’개발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고,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들어 여러 대륙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이 대표적”이라면서 이러한 추세와 관련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러시아는 원전 안전 확보

분야의 현대적 기술과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외국과의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 주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두산중공업(주)에서 공동 원자력 홍보관인 ‘한국원자력관(Korean Nuclear Pavilion)’을 구성하여 유럽형 한국 원전인 EU-APR과 원전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원자력 기술 관련 내용을 전시해 각국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UAE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의 모하메드 알 하마디(Mohamed Al Hammadi)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한국원자력관을 방문하여 전시관을 둘러보고 APR-1400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영국, 터키, 이란, 이라크, 베트남, 남아공 등에서 많은 원자력 관계자들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원자력산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 국제네트워크(RAIN : ROSATOM International Network) 간 업무협약(‘16. 4. 20.)을 근거로 한국원산 강재열 부회장과 Alexander Merten 회장은 향후 한국과 러시아 원자력산업계 간 교류 확대 일환으로 금년 11월 경 원자력연료, 원전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왼쪽)이 Alexander Merten RAIN 회장(오른쪽 끝)과 면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관

유지보수 및 인력 양성 등을 주제로 한-러 원자력산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향후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오랜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내 원전 산업 관련업체들이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로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포럼 참석 이유를 설명했다.

러시아는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10개 원

전에서 30여개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해외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러시아 자국의 기술을 홍보하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활발한 원자력 사업 추진 현황을 엿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자력산업계가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